

그리스도인의 삶

디모데후서 2:14-26

정윤돈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 빛이고 소금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향기다. 율법적인 삶과,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삶을 우리는 구분해야 한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가치있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맡은 일을 대충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다. 율법적으로 할 때는 의무적으로 했다. 시켜서 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이다. 흠과 티가 없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다. 실수하면 바로, 뜨겁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개혁하고 갱신해야 한다. 언어도, 실력도, 모든 면에서 top에 이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후대를 그렇게 키워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대충했다면 로마 정복을 할 수 있었겠는가. 리얼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원한다.

서론 : 왜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과 역할이 필요한가?

(1) 점점 네피림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자세히 설명했다. 박수무당을 생각하면 쉽다. 네피림은 당대의 영웅이었다.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전쟁도 하고, 도시국가도 이루고, 큰 영웅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전통, 윤리 때문이 아니다. 멸종의 위기 때문이다. 다 동성연애를 하면 멸종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서서히 썩어 없어져가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다른 육체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왜 그런 행사를 계속 밀어붙이는가? 소수자로 보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영적인 뿌리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 유전자가 깨어져 버린다.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을 잃고 질병이 난무하게 된다. 제앙과 저주가 와 버린다. 타락하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게 네피림이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 어느 순간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시간표 문제일 뿐이다. 이것을 체크해 보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두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주일성수 한두 번 빠진다고 큰 지장은 없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게 5년, 10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라.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다.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돈, 이익, 인간관계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라. 마음과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주님을 조금만 떠나면 항상 악한 길로 간다. 정신차리고 주님의 은혜로 바로 돌아와야 한다. 창6:11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창6:12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결국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가정만 살릴 수밖에 없었다.

(2) 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빛, 소금, 향기가 되어야 한다. 율법적,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렇게 체질이 되면 된다.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창6:8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하신다.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셨다. 그러면서 창6:9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나. 그런데 현장에 보면 있다. 아름다운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대충 해버릴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므로, 내가 주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해도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당대에 완전한 자 아니겠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그리스도인은 현장에서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 불신자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용서하나. 인간이 아니네’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헌신하니까 말에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멋있게 헌신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알기만 해도 변화될 것이다. 죽고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성령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뭔가 편중되게 가게 된다.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외줄을 탈 때 균형을 놓치는 것처럼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다. 전후좌우, 높이낮이값이, 과거현재미래, 다 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하고 반성하고 점검해야 한다.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피림 시대 속에서 속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실패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의 체질 때문임을 밝혀주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본론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창3:1~5, 고후11:14).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음모를 사용한다. 다툼(딤후2:14), 유익 없는 허영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킨다(딤후2:14下).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넣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 하셔서 우리를(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한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1) 갈2:20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다.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다. 가질 필요도 없다. 죽었지 않나? 고집부릴 것도 없다.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진다. 육하는 성질, 성격은 죽어야 한다. 말씀으로 더 죽어야 한다. 하나님 떠나서, 성경 밖에서 내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일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난이 곧 절대적인 응답이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죽이고 버리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2) 이때 요14:16~20, 요16:7에 나타난 축복이 임하게 된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게 된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내 계획을 없애 버려라.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른다. 그때 말씀, 기도, 성령인도가 필요하다. 그게 성령인도를 받을 시간표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는가. 그러니까 어

려움이 바로 최고 축복인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이 더 큰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과 후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되어 실패한다(고전3:1~3, 갈 5:19~21, 딤후2:14~19).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전3: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시기, 분쟁에 빠지나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이다. “어찌 육신에 속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갈5:19~21에 자세히 나온다. 육체의 일들이다. 한 단어만 가지고도 며칠씩 설교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딤후2:14~19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구역예배에 모이면 자꾸 교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새가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말다툼,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락방 가서 힘 주고 용기를 주고 답을 줘야 하는데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사람이 있다. (웃음) 다락방 문이 닫히는 게 당연하다.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 딤후2:16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다가감이라.” 하나님이 없는 것(Godless)이 경건하지 아니함이다. 우리가 성령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유익없는 헛된 말을 하면서, 말씀 포럼 복음 포럼은 다 놓치면서 살게 된다.

(4)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때부터 고전2:14~16, 갈5:22~23, 빌4:13의 약속이 바르게 나에게 부딪쳐 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것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2. 그러면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리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1)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벧전2:2).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2)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마4:4).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다.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3) 길을 인도한다(시1:1~2). 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4)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막1:35, 시5:3, 행2:1~10, 살전5:17)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다. 최선의 삶을 위해서다. 모든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3천 제자를 돌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다가 울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아서, 3천 제자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하는 센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5)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다(마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6)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낸다(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수표를 얻으리라.”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 시리라.” 좀 실망스럽지 않나? 그러나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지 못하고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찾아내야 한다.

3.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다. 여기에서 성공해야 한다.

(1) 중요성(고전12:12~27) - 99% 불신자와 지내고 있지 않다. 현장이 99% 불신자 아닌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행2:42) - 그래서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성취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4.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한다. - 전도

기도응답을 받고 많은 증거를 얻으면 전도할 수 있다. 말씀을 깨닫고, 실패하는 사람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불신자 상태의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5. 하나님의 뜻은 완전(시간적, 상대적)하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해야 할 우리의 미션이다.

(1) 요14:21 계명을 지키는 자 :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2) 빌2:13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소원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장로님, 성도, 교역자에게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3) 마22:37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과거에는 부담이 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한 메시지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4) 요15:10, 11 내 계명을 지키라 :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도와 가정에서 누려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뭐가? 십자가다. 잘못된 사람을 위해 잘못 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 정신이라도 가져라. 예수 믿고 그 정도도 안 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결론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공부도 대충 해도 되고 이게 큰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또한 무지하다. 버려야 할 율법과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 할 율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든지 율법이라고 싸잡아서 비난한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릴 셈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게 이가 같고 힘든 수준이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 “영육간에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부담이 된다면 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경을 읽어라. 결론이 난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란다. 원수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받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원수를 사랑하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빛, 소금, 향기 되어서 세상을 개혁하고 살리는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실 줄 믿는다.